

## 프랭클린 그레함 기도요청 “미국은 곤경의 때”

오는 9월 26일 워싱턴 DC에서 '2020 기도 행진(Prayer March 2020)'이 예정된 가운데,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수천 가정, 목회자, 교회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곤경에 처한 미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다음달 26일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 미국의 수도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레함 목사는 “미국은 곤경과 고통 가운데에 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가 절실하다”며 “우리 공동체는 피해를 보고 있고, 민족은 분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영상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폭동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언급하며, “우리 주위에 공포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미국은 월요일 오전 현재까지 500만 명이상의 코로나 확진자와 16만3000명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페이스북

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직후인 5월 25일 이후로 포틀랜드를 비롯한 미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연일 폭동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주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의 담임인 잭 그레임(Jack Graham) 목사

도 그레함 목사의 트윗에 “나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레임 목사는 “SBC의 모든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

다”며 “수천 명의 신자들이 우리의 무너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해보자!”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공식 행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도행진은 26일 오후12시부터 2시까지 링컨 기념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8마일의 거리를 걸으며 이뤄지며 참석자들은 행진 가운데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한편, 조지아 주 게인즈빌에 위치한 프리채플 교회의 원로 목사인 젠테젠 프랭클린(Jentezen Franklin)도 8월 1일부터 21일간 미국인들에게 금식과 기도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세계 복음화 공동 프로젝트인 ‘글로벌 아웃리치 2020’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 세계 수천 개의 교회와 관계 부서들과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통해 총 2억 4천 8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2020년 인구센서스 9월 30일 종료, 미참여 한인들 작성 서둘러야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가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 수집을 오는 9월 30일 종료한다'고 밝히고,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미주 한인들

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매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의원 선출 및 지역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

조사 데이터는 의료, 일자리, 학교, 소방, 공공시설, 도로 및 사업 등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과 공공 보건 및 안전과 비상 대책 등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인구가 누락될 경우 연방 지원금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금 유치는 물론이며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공급될 물량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민의 정확한 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0 인구센서스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거주민은 누구나 온라인, 우편, 전화 등으로 인구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센서스국은 센서스 조사지 안에 법적인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 항목은 없으며, 철저한 보안으로 지역 경찰 등 어떤 정부기관에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 번호(SSN), 현금 또는 기부금, 정당 지원이나 은행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절대 묻지 않는다.

아직 센서스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들은 웹사이트(2020CENSUS.GOV 또는 2020CENSUS.GOV/ko) 또는 영어가 불편한 경우 전화 (844)392-2020를 통해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아직 센서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가 시작했다. 센서스 인구 조사원은 가정 방문시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뤄진다. 조사원 방문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조사원 방문시 부재 중일 경우 최대 6번까지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센서스 인구 조사원의 가정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을 마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미주 한인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 국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 호소문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법의 유해성을 깨닫고 또 미주 4,000여 교회와 150만 성도들은

이 법으로 조국의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를 잃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 긴급 호소문

**첫째** 이 법은 비성경적인 법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인 법안이다.

**둘째**,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다.

**셋째**, 이 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정과 교육의 기회를 말살하는 법안이다.

**넷째**, 이 법은 성경적, 윤리적 교육을 행하는 부모, 교사, 목회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나쁜 법안이다.

**다섯째**, 이 법과 유사한 법이 실행되고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실패한 법안이다.

2020. 8. 1.

미주한인기독교총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 |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JAMA(대표 강순영 목사) | 청교도400주년기도운동(대표 한기홍 목사) | 중남미지역(대표 김상돈 목사) | 캐나다지역(대표 임현수 목사)



#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바로 세웁니다”

### 주님세운교회 한국과 미국 위한 특별 작정 새벽기도회 진행



실외 친교실에서 한국과 미국 위해 기도하는 주님세운교회 성도들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가 “전교인 구국 일천번제예배”를 선포하고 코로나와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

지난달 20일 새벽부터 전교인 기도를 시작한 교회는 미국과 한국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고, 경제가 회복과 더불어 모든 교회의 예배, 교육, 선교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결돼, 가정과 교회, 나라가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박성규 목사는 “모든 교인이 위기에 가운데 있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룩한 나라로 바로 서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기도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하고 있으며, 대형스크린과 음향장비가 설치된 실외 친교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 UCI MIND 자문위원으로 위촉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자문위원회는 UCI MIND의 특별 초청을 받은 약 40명의 지역사회 리더, 비즈니스 리더들로 구성되어 UCI MIND의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군이자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커뮤니티 아웃리치, 후원 행사 지원, 마케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 등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오고 있다.

### 한인 사회 내, 치매 전문 연구기관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이 치매전문 연구기관인 UCI Institute for Memory Impairments and Neurological Disorders(이하 UCI MIND)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UCI MIND는 UCI에서 치매와 뇌질환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의대 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UCI MIND 자문위원회의 특별 초대를 받아 2020년 7월 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유분자 이사장은 “특별히 고령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인 지역사회 내에 UCI MIND를 알리고,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 한인 시니어들이 UCI MIND의 최첨단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UCI MIND가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삼위일체에 대한 입장 변함없어”



2019년 3월 11일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개최됐던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제 8차 정기총회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회장 김순관 목사 이하 세이연)는 지난 6일, 세이연 제8차 정기총회(2019년 3월 13일)에서 결의한 성명서 중 제 2항(박형택 목사의 사과문은 개인의 의견일 뿐 세이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박형택 목사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이 사과문을 악용하여 언론에 세이연을 매도한 진용식 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을 재기록하고 발표했다.

세이연은 제 2항에 대한 재기록에서 “2018년 9월의 글은 박형택 목사가 세이연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박형택 목사를 엄중히 문책하였

고, 반면 자신의 삼위일체 글에 대한 사과문을 낸 박형택 목사(2019년 3월- 제목: 박형택 목사 “삼위일체 잘못 이해 사과드립니다”)의 용기를 치하했다”며 “삼위일체에 대한 세이연의 입장(1. 세이연의 삼위일체관은 본질로는 한 하나님이고 위격으로는 상호 구별되고 상호 교류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믿는다.)은 예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1항에 요약한 삼위일체를 고수하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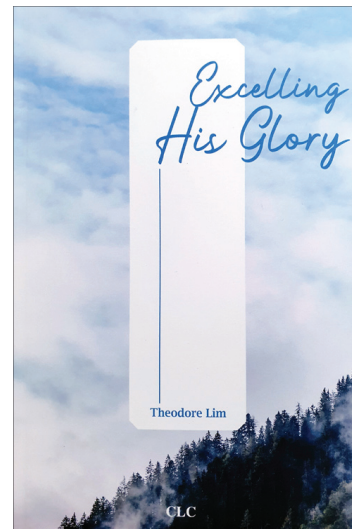
또 “박형택 목사가 2018년 9월에 지적, 논란이 된 삼위일체 문제는 진용식 목사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세이연 성명서의 분명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사전 조사나 질의도 한 번 없이 박형택 목사의 사과문(2019년 3월)을 악용하여 언론에 세이연을 매도한 진용식 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순관 목사는 “세이연은 세계 9개국의 이단 전문 사역자들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거나 금권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이단연구 및 대책을 통해 전 세계 한인교회에 침투하는 이단사이비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 두 번째 영문 칼럼집 출간



임지석 목사

페이지 분량에 엄선된 120여 개의 영문 칼럼이 수록됐다.

임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소재와 사건 가운데 묵상하며 느꼈던 생각들을 담백하게 써 내려간 신앙의 고백”이라며 “칼럼을 통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간결하게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임지석 목사의 영문 칼럼 Excelling His Glory가 CLC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됐다.

Excelling His Glory는 임목사의 두 번째 영문 칼럼 책이자 그의 아홉 번째 저서로 270여

신간 Excelling His Glory는 영어권 독자들이 무겁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신앙 서적으로 전도나 소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구입 문의) 213-219-9229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남가주 교계, 교회와 나라 위한 특별 기도성회 개최



남가주 교계 연합 기도 대성회 준비한 목회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남가주 교계 연합 기도 대성회가 지난 5일 미주 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진행됐다.

심진구 목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미주지부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

### 지용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행된 기도성회는 진석호 목사(LA전도대학 학장)의 대표 기도에 이어 지용수 목사(한국 양곡교회 담임,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가 ‘능력의 통로’(엡 3:14-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용수 목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것을 권면한 것처럼,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한다”며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며 “삼위일신 하나님이 하나이듯, 각각의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연합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정요한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 증경총회장)의 인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전세계를 위해 기도했다.

한편 이날 지용덕 박사(연세아카데미원장)는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임)에게 연세아카데미 이사장 취임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성회를 마쳤다.

# 노진준 목사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냐”

유튜브 채널 백문일답은 최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힘든 분들은 꼭 들어야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노진준 목사(전 LA한길교회)의 고난설교 I’을 전했다.

노 목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며 잘못된 점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내가 미국 동부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내게 전화했다.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생물학 박사과정을 밟은 자매였다. 그녀는 내게 급히 찾아와달라고 했다”며 “내가 찾아간 곳은 정신 병동이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 몸이 아프고 쑤신 이후부터 거식증과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했다”고 했다.

노진준 목사는 그 자매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유학을 왔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과 기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그녀는 고민 끝에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다”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존스홉킨스대학 생물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한다. 몸이 아프고 나서 그 자매는 ‘하나님의 뜻은 피아노 전공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를 만난 건 이를 확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노 목사는 그 자매에게 “오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기대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니까”라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녀는 얼마 후 퇴원했다. 그런 뒤 자매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며 “2-3달이 지난 후 연말 즈음, 그녀는 나를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 약속 있어서 만나지를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 그 자매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노진준 목사는 그녀의 자살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루실 수 있을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가지는 회의와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함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려 했던 것 같다”고 추측하며 “욥, 에레미야, 하박국을 기억하는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며,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만 계시냐며 항변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들을 기억하

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 인가’를 물어야 한다.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무조건 침묵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며 “차라리 읊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이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변하고 깊이 사고하며 어떨 때는 따지듯,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결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다. 읊의 경우처럼, 읊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했다.

특히 “(욥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했던 게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고 물었던 것 같다”며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끔찍한 요구를 하시면서 그의 순종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했다.

노진준 목사는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데리고 사할 길을 걸었다. 걸어가는



노진준 목사

중에 아들이 묻는다. ‘여기 햇빛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하자 아브라함은 ‘제물은 하나님이 마련 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아브라함은 찢어질 듯 아플 것 같다. 고통스럽게 아들을 데리고 간다. 아버지가 제단 위에 아들을 묶는데 (이삭은) 그냥 있다. 나라면 벌써 도망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며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나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전면적인 회의를 했을 것 같다. 아브라함은 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 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을 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아주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 하나님이 불의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네게 준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성신대 명예교수) 이종환교수(에스디대), 송정영목사(복음원대 경동대), 권준목사(중앙대미주대), 신정원목사(동일대 대목이다), 유관지목사(동일대), 김인식목사(KCC공동대)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 / 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저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크레디터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www.gs.edu/keb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9

### “이슬람의 강국인 터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지난 몇 개월간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 안에서는 크고 작은 선교 모임이 이어졌다. 필자는 선교집회, 간증, 미팅 등을 참가하며 미주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마저도 선교 일정들을 늦추거나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웠다. 후방에서 선교 파송과 후원 사역이 멈추어지면 최전방 선교현장에서 영혼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생활하다가도 가족이나 사회의 핍박을 받으면 다시 무슬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지기수다. 한 장기 선교사의 사역 간증에서 말을 빌리자면 10명을 영접시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면 그중 3명 정도 남으면 많이 남는다 할 정도로 믿음의 정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후방의 선교지원이 멈추어지면 다음 세대의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1일 미주 전체에서 참여했던 선교캠프의 마지막 파송예배를 드린 후 수개월간 기도로 눈물로 훈련으로 준비되었던 각 선교팀들이 속속 열방을 향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팬데믹으로 이슬람 나라가 국경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 터키도 한동안 막혔었다.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던 때가 그 시기였다. 그러나 어느 한 팀도 포기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나라의 문을 정하신 때에 여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들은 믿었다. 청소년 유스팀부터 일반팀, 여성팀, 메디칼팀들이 이르기까지 각 팀장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아뢰었다. 그러면서 터키가 7월 중순 열린 것이다. 필자는 터키를 사랑하고 기대한다. 지난 12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밟고 온 터키 안에는 이슬람권 모든 민족과 종족이 어우러져 사는 거대한 영적 쉼터 드볼이다. 우리 미국과 같다. 터키는 정치적으로 이슬람 나라가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슬람의 강력한 리더십 국가이면서도 국가적으로 종교 자유를 허락한 나라다. 그 한 나라가 열렸는데 우리 선교팀은 다 다른 민족을 품고 들어 갔다. 시리아난민팀, 레바논 난민팀, 이라크 난민팀, 아프가니스탄팀, 위구르팀 등등... 그리고 샘물학교팀(장기 선교사 자녀들 섬김), MIT팀, 메디칼팀, 엔지오팀, 유스 HSM팀 등 한 선교단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십여 개의 팀들이 각기의 팀 리더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려 하고 있다. 막히면 막히는 데로, 힘들면 영영 울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전진하며 지금 현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다. 지금 미주 각 지역에서의 팀별 기도팀들이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300명이 넘는 텔레그램 팀방을 통해 24시간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여야 한다. 하나님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 필자는 방문하는 지역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인터내셔널 선교회가 그 사명을 끊임없이 수행하며 지금까지 역경을 돌파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아! “하나님의 선교(Misio Dei)”다. 말 그대로 선교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어떤 환경이 막을 수 있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사역을 세상 어느 누가 막아 세울 수 있을까? 철옹성 같은 이슬람의 장벽이 막을 수 있을까? 반기독교 단체들의 조직적 음해의 여론 조성이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막을 수 있을까? 창조주 주권자인 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아무리 막힌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선교를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선택하신 일꾼들과 더불어 열방 전역에서 수행하고 계심을 믿는다. 지난 7월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행복 만들기 (17) 인내

## GRIT 그리고 인내지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펜실베이니아대학 심리학과 앤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교수가 2013년 TED강연을 통해 소개한 Gr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릿(GRIT)은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Acronym)입니다. 더크워스 교수가 쓴 ‘GRIT’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GRIT이라는 말은 최근 심리학과 행복학 등에서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습니다.

1940년 하버드대 연구팀은 대학 2학년생 13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실험의 대상이 된 130명 학생들의 지능, 성격, 경제적 수준 등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러닝머신(Running Machine)에서 뛰라고 요청했습니다. 최대 속도로 러닝머신에서 5분을 뛰는 간단한 실험이었고 실험을 마친 학생들은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의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130명의 학생을 대학 졸업 후 2년마다 연락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연구팀은 무려 40년이나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60대가 된 시점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겪은 직업적 성취도와 사회적 만족도는 지능이나 성격,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릿(Grit)’ 점수에만 비례했습니다. ‘그릿 점수’는 러닝머신에서 뛰기 실험을 할 때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뛰었던 끈기’를 바탕으로 매겨진 점수였습니다.

아틀란타의 그레이스 감리교회와 텍사스 휴스턴 제일 감리교회를 목회했던 찰스 알렌목사님이 계

십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작가요 상담가입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God’s Psychiatry(하나님의 정신치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공한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잘해 부와 명예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는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던 중 찰스 알렌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라는 의사의 권면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 온 것입니다.

Allen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 처방이란 바로 앞으로 1주일 동안 하루에 다섯 번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어서 다섯 번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식사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서 꼭 시편 23편을 정성스럽게 읽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다섯 번 읽는다든지, 혹은 2,3일 해보고 이제는 잘 아니까 적당히 외워서 넘어간다든지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 맞추어서 약을 먹듯이 꼭 처방대로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이

런 처방을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삶에는 양으로 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양이 되어 주님을 따르면 평안을 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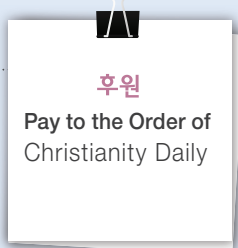
인내가 행복이나 마음의 평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면 부자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 7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연구에 따르면, 각국 인내 지수가 높을수록 부(富)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을 충실히 살고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은 인내함으로 과소비로 인한 빚을 지지 않고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몇 년, 몇 십 년에 걸쳐 인내심 있게 부를 쌓았습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은 “지능지수인 IQ가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지 않고 인내지수인 즉 PQ(Patience Quotient)가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한다”말했습니다. 인내지수가 높은 사람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실험과 일맥상통합니다. 실력이나 재주가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힘이 인생을 승리로 이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이 로마제국을 정복합니다. 기독교가 혹독한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로마의 황실을 지배합니다. 나아가 기독교는 세계로 퍼져 나가는 세계적 종교가 됩니다. 이런 승리의 비결이 초대 교회의 높은 인내지수입니다. 지금도 인내 지수가 높은 기업, 인내 지수가 높은 교회, 인내 지수가 높은 인생이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나눔을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희망과 기쁨에서 시작되는 코어와 함께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Pandita Ramabai

#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 (14)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웨일즈와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있던 인도와 호주와 아프리카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아사주 부흥, 평양부흥, 만주 부흥으로 그 불길이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1905-1906년에 인도 여러지역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영국의 케직 사경회와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인도부흥에 강한 영향과 도전을 주었다. 인도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케직 사경회에서 영적인 각성을 체험했던 영국 출신 선교사 워드(R.J. Ward)와 여성 사회 개혁가인 라마바이(Pandita Ramabai),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인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John Hyde)를 사용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영국출신 인도선교사 워드는 1891년에 영국 케직사경회에 참석해 강력한 개인적인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인도에 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사역지인 인도 남부 마드라스로 돌아와 인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다. 1897년에는 학생자원선교운동(SVM) 단체에게 인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고, 1902년에는 워드 목사가 선교사들과 인도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하여 그가 전개한 기도운동에 8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동참했다.

그는 계속해서 무디성경학교와 무디교회에, 호주에, 케직 사경회에 인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인도의 부흥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망을 구축해 중보기도가 울려지게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호주와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소식들이 인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1, 인도 동북부 아삼(Assam)주 카시족 중심으로 일어난 강력한 부흥**

아삼주에는 웨일즈 출신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었다. 1904년에 아삼주에 있는 카시족 교회는 카시와 전 세계에 성령께서 강

하게 임하시도록 월요기도회를 시작했다. 기도회가 뜨거워질 무렵 1904년에 자신들의 모교회인 웨일즈의 대부흥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아삼에도 같은 부흥을 주시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1905년 초 카시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시 때까지 매일밤 기도회를 갖기로 정하고 매일 밤에 모여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 몇 개월 만에 카시교회에 8천명이 증가했다. 1906년 3월 첫 주일예배에 성령세례에 대해 설교했는데 그날 통회와 함께 찬양이 터졌고, 다음 주일 저녁예배 후에는 온 회중이 울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에 강력한 부흥이 어린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임해 삶의 변화, 화해와 빌린 빛갈기, 사회개혁, 치유사역이 활발히 일어났고 아삼지역의 부흥은 인근 나우공, 나갈랜드, 미조족으로 계속 번져나가게 된다.

**2, 여성 사회개혁가인 라마바이의 지도하에 일어난 목티의 부흥**

가장 강력한 부흥이 목티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라마바이는 브라만 계급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잃었고,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결혼 19개월 만에 남편도 잃게 된다. 1883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영국에 있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크리스천이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다. 인도로 돌아온 그녀는 젊은 과부들과 소녀 고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 사로잡혀 봄베이 남쪽 끝 지방에 100에이커의 과수원을 인수해 고아와 젊은 과부들을 위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를 설립한다. 1898년 영국의 케직사경회를 방문했던 라마바이는 개인적인 영적 각성을 체험하고 그곳에 모인 4000명에게 인도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목티(구원, 구조

의 뜻)라고 불리는 그녀의 센터에는 약 2000명의 젊은 부녀들과 소녀들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다. 라마바이는 보살피고 있는 인도의 젊은 과부들 사이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1899년 이후 금식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1901년 그녀는 성령강림을 위하여 특별기도회를 갖기 시작한다. 그녀의 신앙은 날로 깊어갔고 1902년에는 그들 중에 12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많은 소녀들이 진심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무렵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3주 동안 진정한 부흥을 보내주셨다. 그녀는 호주와 웨일즈에 임한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부흥에 대한 소원이 더욱 강렬해졌다. 1905년 라마바이는 부흥을 위해 70인 기도단을 조직했는데 곧 250명 이상이 모여 매일 두 차례씩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 그녀는 소녀들 중에 30여명의 자원자들을 뽑아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 매일 특별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905년 6월에 이 소녀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모두 느끼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운영하는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학교 전체가 부흥에 휩싸이게 된다. 목티 학생들 중에 700명이 자원하여 매일 60명씩 한 조가 되어 마을 전도를 시작해 2개월 만에 1200명이 회심하는 일도 일어났다. 1905년에 조직된 목티 소녀 기도단을 통한 부흥의 불길은 봄베이의 여러 교회들, 중부의 감리교 산하 미션스쿨들, 여러 지역의 선교회와 고아원들로 번져갔다. 여러 지역에서 목티 소녀기도단을 초청했고 그녀들은 가는 곳마다 기뻐 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자백, 화해, 변상 등의 역사가 나타났다.

**3,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를 통한 편잡 지역의 부흥**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하이드는 미국에서 맥코맥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892년 인도에 선교사로 도착하면서 성령충만을 체험한다. 인도 서북부 편잡(Punjab)주에 머물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은 회심자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다. 도착 즉시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1899년에는 인도와 편잡지역의 부흥을 위해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1904년에는 하이드와 몇몇 선교사들이 편잡 기도연합회를 만들어 영적 추수와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1904년 8월 부터 매년 편잡주 시알코트에서 인도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존 하이드는 이 모임을 위해 기력이 쇠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강사로 섬겼다. 하나님께서 하이드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표자회의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미션스쿨들, 신학교와 그들이 사역하는 여러 지역에서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부흥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타교단으로 옮겨져 선교회와 미션스쿨들 그리고 타지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옮겨갔고 부흥은 1910년까지 그 주변 전역으로 확산 되었다. 웨일즈, 아삼주, 목티센터, 편잡주에서 강하게 타오르는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지자 인도의 남부에도, 동남부에도, 여러 지역에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와 함께 부흥운동이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인도 부흥운동에 대한 정리**

1, 인도의 부흥은 외부에서 일어난 소식에 도전을 받아 일어났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호주의 부흥운동, 케직사경회를 통해 크게 도전을 받음으로 일어났다.

2,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케직사경회에 참석해서 부흥을 체험했거나, 부흥의 소식을 들었거나, 선교사들을 통해 부흥의 필요성을 도전 받고 인도 부흥의 필요성을 깨달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

이 맡고 있는 고아원, 미션스쿨, 교회와 도시에 동일한 부흥을 주시도록 먼저는 그들 자신이, 그리고 기도동지들을 모아 간절히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

3, 부흥운동이 진행될 때 이들 가운데 회개운동, 죄에 대한 고백이 강하게 나타났고 아울러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했고, 빛을 빨리 갠았고, 술집이 없어지는 등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때로는 신유, 입신이 일어났지만 예언이나 병인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편잡주에서는 크리스천이 1904년에 37,695명 이었는데 1909년에는 163,994명으로 4배 이상이 늘어났고, 인도 전체적으로는 10년간의 부흥기간에 크리스천이 69%가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힌두교 국가들의 증가율의 16배에 해당되는 수였다. 인도인 복음 전파자와 전도자 수는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이전의 두 배로 증가했다.

오늘날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선교사 Ward 나 John Hyde 나 라마바이처럼 간절하게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들처럼 오늘날 미국에 강력한 부흥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b>IRUS</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li> <li>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li> <li>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li> <li>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li> <li>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li> </ul>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b>미성대학교</b>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 ATS 준회원</li> <li>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li> <li>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li> <li>목회학사 과정 신설</li> <li>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aeu@aeu.edu</p>	<p><b>MIDWESTERN</b>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li> <li>100% 한국어</li> <li>I-20 발급</li> <li>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li> </ul>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월드미션대학교</b>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ATS 정회원</li> <li>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li> <li>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li> <li>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li> <li>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li> </ul>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복음대학교</b>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CS 정회원 인준</li> <li>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li> <li>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li> <li>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li> <li>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li> <li>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li> </ul>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GATEWAY SEMINARY</b>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b>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b>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EDU / KEB</p>	<p><b>그레이스 미션 대학교</b>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b>Azusa Pacific Seminary</b>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b>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b> 입학문의 ☎(626)857-2200</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b>광고 및 후원 문의</b></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당선되면 성경도, 하나님도 대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을 지목해, 만일 그(바이든)가 당선되면 그는 “하나님을 해칠 것(hurt God)”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하이오주 순방 중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해 “급진적인 좌파 의제를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 “총을 빼앗고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합법화 한) 수정헌법 2조를 파괴한다”며 “신앙도 없고, 성경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해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총기들을 반대하고, 우리와 같은 에너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이든 캠프의 앤드루 베이츠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신앙은 그가 누구인가에 관한 핵심”이라며 “그는 평생 신앙인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반박했다.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신앙이 1972년 교통사고로 전부와 딸을 잃은 비극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오는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White House/Tia Dufour

선거는 물론 하원 전체와 상원 전체가 선출된 미국 기독교인 유권자층을 잡

기 위한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민주당이 급진 좌파들에 의해 ‘급습’을 당해 올 11월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시사했다. 그는 5일 플로리다주 템파시 소재 스타키 로드 침례교회를 방문, 공화당 선거모금을 위한 ‘미국의 믿음(Faith in America)’ 행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화당이 될 것이냐, 민주당이 될 것이냐, 청색 혹은 적색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미국이 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미 대학생 신앙 이탈율 70%...대안 온라인 플랫폼 등장



찬양하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청년들. ©Watermark Community Church

크리스천포스트는 대학에 입학해 신앙을 떠나는 미국내 기독교인 대학생들을 다른 신자들들과 연결, 어디에서든 복음을 중심 삼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돕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최근 소개했다.

‘에브리 스튜던트 센트(Every Student Sent)’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캠퍼스 리뉴얼’이 주도해 출시한 플랫폼이다. 캠퍼스 리뉴얼은 학생들과 캠퍼스 사역, 지역교회를 연결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미국 대학 내에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EST는 기독교인 대학생이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 부처와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학내 기독교 사역이나 단체에 손쉽게 지원할 수 있

다.

존 텍커 EST 전략적 파트너 이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에 캠퍼스 부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된다”며 “따라서 대학이 가상(온라인)이든 물리적이든 캠퍼스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텍커는 또 ‘캠퍼스에서의 첫 72시간’은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지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이며, 따라서 가능한 빨리 그들을 캠퍼스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개 이 72시간이 그들의 대학 시절 영적 경험을 규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친구를 전도하면 그들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보아왔다”고 덧붙였다.

이 플랫폼은 대학생뿐 아니라 기독교 고등학교와 교회를 위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 EST측은 학생들의 진로 및 전공 탐색, 소명 발견을 돕거나 학자금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 등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ST는 미국 전역에서 약 70%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경향을 되돌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작년 1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대 시절에 최소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개신교 교회를 다니던 청년 중 약 66%가 중도에 교회를 떠났다.

EST는 선교 훈련 접목과 광범위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들의 신앙 이탈 현상이나 대학시절신앙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텍커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생들의 이탈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30%의 학생은 30세가 되면 교회를 다시 찾아왔을 것”이라며 “이제 문화는 덜 기독교적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더 이상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과 관련,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하고 연결하는 것이 정상적이 되도록 교회 전체가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 오레곤 누드 댄스장 교회에서 25피트 거리 두고 영업 논란

오레곤 드레인 시, 어린이 시설 500피트 이내 성인업소 영업 금지



패밀리 펀 볼 볼링장은 오레곤 드레인 시에서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이었으나 최근 탑 오브 더 볼 클럽이 들어서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일, 오레곤 드레인 시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인근에 성인 오락 업소 위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지역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로 성인 업소는 드레인 시(市) 내,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500피트(약 150미터)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드레인 시가 이와 같은 조례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6월 누드 댄스 쇼를 진행하는 탑 오브 더 볼(Top of the Bowl)이 지역 교회인 게이트웨이 패밀리 펠로우십((Gateway Family Fellowship) 교회에서 불과 25피트(약 7미터)의 거리를 두고 영업 시작을 알린 데 있다. 심지어 교회와 댄스장 사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성인 오락시설의 입점을 금지할만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탑 오브 더 볼은 페이스북에 댄스들의 선정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게시하고 인근 성인용품 업소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사회와 교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개장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에 게이트웨이 교회 레이 페리(Ray Perry) 목사는 태평양 법률협회에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를 통해 드레인 시의회에 법률 서한을 보내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500피트 이내에 성인 오락업소가 들어서

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게이트웨이 교회의 변호를 맡은 레이 해크(Ray Hacke) 변호사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 성인 오락 사업이 어린이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성인 오락 시설을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게 규제하고,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그룹 등을 위한 장소에서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작은 도시든 큰 도시이든 아이들을 성인 업소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탑 오브 더 볼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레곤 사업자 면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항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 故 빌리 그레함 목사 동상, 내년 美 국회의사당에 전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 장면.

미국 국회의사당에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동상이 내년엔 전시된다고 릴리전 뉴스 서비스(RNS)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입법 위원회는 2018년 사망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실물 크기 동상을 전시하기로 한 안건을 승인했다. 이 동상은 국회의사당 스태추어리 홀(Statuary Hall)에 전시될 예정이다.

의회위원회가 이 결정을 승인하면 조카가 찰스 페이건(Chas Fagan)이 실물 크기의 동상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페이건은 워싱턴 국립 성당에 전시된 테레사 수녀, 성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포함한 여러 종교 인물상을 제작한 바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스태추어리 홀에는 미국 각 주에서 직접 제작해 기증한 1백여 유명인물의 조각상이 전시돼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동상은 전 주지사인 찰스 브랜틀리 에이콕(Charles Aycock)의 조각상을 대체할 예정이다. 에이콕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백인 우월주의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아 왔다고 RNS는 보도했다.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 덴 수석 상원의원(공화당)은 “기독교 관점에서 그레함 목사는 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아이콘이다. 그는 60년 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목록에서 10위 안에 들었다”고 언급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수년 간 그레함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레함 목사가 어린 시절 시간을 보냈던 복원된 사택은 샬럿 지역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다.

국회의사당에 전시될 동상은 1960년대 그레함 목사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제작될 예정이다.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RNS에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며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고 말했다.

빌리 그레함 복음전도 협회는 동상 제작과 설치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 비용은 약 65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주 정부 기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점토 조각상이 완성되면 의회위원회 검토를 거쳐 청동으로 주조할 수 있게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 “미국인들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점 벗어나는 중”



©Unsplash/John-Mark Smith

최근 아리조나 대학(UA)이 발표한 미국인의 세계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 줄었으며 사람이 단지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대학의 문화연구센터가 발표한 ‘미국인 세계관 조사 2020(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0)’을 인용, 미국인의 3분의 2는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 가지는 것을 좋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응답한 기독교인은 68%였으며, 그 중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밝힌 응답자는 56%, 오순절파라는 대답은 62%였다. 그밖에 주요 개신교에서는 67%가 이 같은 답에 동의했으며 가톨릭 신자는 77%가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원과 관련해서 ‘의롭거나 선행(being or doing good)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개신교인은 44%, 천주교인은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오순절파는 46%, 복음주의 계열은 4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국인의 58%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의 기초가 하나님 이외의 요소나 원천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77%는 ‘옳고 그름은 성경 이외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인의 59%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참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69%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답했다.

이 단체 이사인 조지 바르나는 최근 CP

에 보낸 서한에서 “오늘날 미국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들을 보면, 대부분은 삶의 목적이 자신에 대해 좋다고 느끼는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인들 대부분은 모든 신앙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택한 수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인도하거나 성장시키는 절대적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바르나는 이어 “이런 삶의 철학은 미국의 존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록인 성경과 미국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전통을 버리고, 포용적이고 조건부적인 선호도로 대신함으로써, ‘미국의 실험(American experiment)’이 2세기 넘도록 성공할 수 있게 한 기초를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중대한 도덕적 기관들 중에 특히 가정과 교회가 깨어나서, 나라가 본 궤도에 오르도록 도와줄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1월,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UA 문화연구센터는 최근 수십 년간 변화해 온 미국인들의 세계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바르나는 과거 CP와의 인터뷰에서, 30년 전 미국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나, 현재는 문화의 많은 영역이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돼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 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세대 세대를 섬기며, 이민이 영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일침례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7: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청년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에델만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학교(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기도회(마)지주(수) 오후 8:00  
종교개혁의 날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유권)  
Blended Service  
사령부 오전 8:45(교유권)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날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종교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리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1914 Ribault St., Northridge, CA 91326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러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년부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년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년동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고,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부예배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레바논 한인교회, 폭발 현장에서 피해 복구 지원



9일 현지인과 한인 사역자 30여 명이 피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조창현 선교사

최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피해 현장에서 레바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현지 한인 사역자들이 생수와 마스크, 식량 등 구호품을 현지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며 피해 복구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2012년부터 레바논에서 시리아를 섬겨 온 조창현 선교사는 8일 "사고 발생 이틀 낱인 5일부터 매일 레바논 한인교회와 한인 사역자들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생수, 마스크, 식량 등을 현지인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교회는 구호물품 구매팀과 현장팀으로 나눠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 선교사는 "아직 국제구호개발 NGO들의 긴급구호활동이 셋업 전이고, 내국인 단체들이 다섯 곳 정도 구호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인 단체는 저희가 유일한 실정"이라며 "아마 내일(9일)부터는 구호단체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현장은 복구하는 사람들과 시위하는 사람이 뒤엉켜 있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폭발 참사와 관련하여 8일 5천여 명 규모의 시위대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조창현 선교사는 현지 병원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구 450만 정도의 레바논에서 8월 5일부터 매일 200~300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발 참사 3일 전부터 이미 레바논 병원이 코로나 환자로 병상이 꽉 찼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부상자들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에 병실과 의료진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에서는 창고에 적재된 2,750t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했다. 엄청난 폭발 충격으로 항구 주변은 초토화됐으며, 반경 2~3km 내 모든 건물의 출입구와 창문이 심하게 파괴되고 노후 건물은 붕괴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지역까지 건물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컸다. 레바논 정부는 현재까지 16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서 외국인의 종교 활동 참여 · 인도 금지하는 법안 발의돼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러시아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지난 7월 22일 러시아 의회인 두마에 제출했다.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7조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종교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국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제 7조는 또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참여자들은 예배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모으고 교육할 권리가 있지만 기도 모임은 개인 가정에서 열 수 있으며 특별히 승인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나라의 국가교정사무국(State Revisers Bureau) 공식 목록에 따르면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종교 공동체 참여와 인도가 금지된다.

지난 몇 년 간 여호와의 증인, 침례교를 비롯한 기타 그룹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Unsplash/christianw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종교 교육을 받은 사제나 종교인이 극단주의 종교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매체는 "이같은 금지 법안은 개신교 목사, 무슬림 설교자,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한홍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혼란스러운 길을 가자는 것인가?”

한홍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새로운교회의 입장'을 유튜브를 통해 4일 발표했다.

한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기도제목 두 가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고자 한다"며 "알다시피 한 번도 강단에서 정치 문제를 다룬 적이 없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해 왔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분명한 영적 보이스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제목을 나누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3개 항목에서 이유없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했다.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표면적으로는 좋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호받아야 할 약자 안에 성소수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아담과 이브로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로 만들지 않으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성소수자 중에는 남성 여성 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성'이 규정돼 있다.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홍 목사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학교에서 이것들에 대해 아무 여과장치 없이 정상적인 것으로 배우게 되고, 설교자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설교자와 교회가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법을 오래 전에 통과시킨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 또 다른 동성애자



한홍 목사 @유튜브

들을 양산하고 있다. 가정의 질서가 엉망이 된다"며 "미국 화장실에 가 보면 남성, 여성, 양성 3개로 나뉘어 있다. 오늘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내일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간다. 이렇게 되면 군대나 학교 기숙사 등이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성윤리 타락과 가정 붕괴로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미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저는 그 병폐를 똑똑히 목격하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혼란스러운 길을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미 평등권 규정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들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리 국가라 해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간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상으로 가르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또 종교차별 금지라는 명목 하에 한국교회를 어지럽혀 온 여러 종류의 이단들을 비판할 수도 없다. 나라 법에서 처벌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약자의 평등을 위한다는 이 법은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한국인 6명 억류됐는데 北에 1천만 달러 지원한다는 통일부 장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인.

## 교회인론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국교회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교회인론회는 "최근 미국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인 '세이프 식스 코리아(save 6 korean)'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은 누구인가?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라며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에 체포돼 다음해 6월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교회인론회는 "북한은 이들 선교사를 체포·구금하고 억류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반국가 활동, 국가 전복, 간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난민'과 같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장 7년 이상 강제노동역과 심각

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반인도적·비이성적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남북 정상은 3번이나 만났지만, 회담에서 자국민 석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회인론회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로 억류돼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시켜, 한반도 평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와 건강 문제만이라도 급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과 귀환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국제 사회가 먼저 나선 것도 칭찬할 일이지만, 억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제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석방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이대웅 기자

토레스 조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김우준 담임목사.

Cornerstone Church.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O.C., 엘바인 지역

CMF선교회. 가정용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김철민 장로.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민승기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구봉주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동 하는 생애공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김성원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왕상윤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최순길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안창훈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안상희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김일권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안성복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김학준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이서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김한요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정기정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한기홍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남성수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786. 신원규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박 훈 담임목사.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PM 7:00 - 9:00	설교학	Dr. Jong Kim
Tue	PM 7:00 - 9:00	로마서	Dr. James Lee
Wed	PM 8:30- 10:30	사무엘상,하	Dr. Timothy Song
Thu	PM 7:00 - 9:00	현대신학 II	Dr. David Lee
Fri	PM 8:30- 10:30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Sat	PM 7:00 - 9:00	청교도 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Sun	PM 7:00 - 9:00	조직신학 I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육체의 가시와 감사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늘 경험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그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아마도 안질 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는 이와같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결코 포기함을 모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는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해 정치력을 발휘한 도시이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은 주변 도시들에 비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넘치는 부로 인하여 사회적 타락은 심각했다. 그것에 편승한 것이 이방종교였다.

이런 도시에 복음의 횃불을 밝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려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전도활동을 펼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 왜냐하면 그곳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유대인 전도보다는 이방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린도 문화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들은 쉽사리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 당연히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은 여러 문제를 일으켜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내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에 기도에 답하시길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 가시란 무엇일까? 가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며 세상에 집착을 버리게 만들어 준다. 누군가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통을 통한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 고린도후서 1장 1절 - 8절

성경에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 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모습을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혹독하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속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울리지 않게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말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전하며 그가 당한 환난 중에도 위로를 허락하시고 동행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쉬지 말고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라고 고백했고 심지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바울의 이와 같은 감사를 과연 어떤 감사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가시 감사”라는 표현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무례한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전도를 받은 다음입니다. 교인이 된 그는 이듬해 노블(W.A. Noble) 선교사가 건네 준 쪽 복음을 읽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맞아죽는 꿈”을 꾸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평양 시내에서 그의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권능 목사는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일본군 연대장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말에 탔던 연대장이 땅에 떨어지고, 화가 난 연대장은 최권능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세계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나”라며 조롱하는 일본군을 향하여, 최권능은 “나는 죽었고, 내 속에는 예수님 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인들은 그를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위대한 최권능 목사님의 사례를 알지만, 청년 시절의 우리 생각은 “불신지옥”이 기독교인의 정중함을 혹 손상시키는 처사가 아닐까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우리들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훈대로 “지옥의 실제와 장소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르침을 한 점도 놓치지 않고 교리적 논쟁에서 후퇴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더 무례하지 않게 전도를 위한 조심스런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천당과 불신지옥”은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신학적으로 행실의 선한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이 말이 복음에 대한 총체적 소개는 아니라는 비판의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보편구원설”, 심지어는 타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현재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가르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않으면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부 시절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띠를 두르시고 전도하셨습니다. 한참 교회당을 지을 때에 건축헌금으로 1억을 작성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작성한 것을 다 내지는 못하셨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몇몇 후배들은 “형님, 불신지옥은 지우고 예수 천당으로만 전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조언을 했지만, 선배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는 “최권능”으로 더 잘 알려진 최봉석(1869-1944)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의 고유한 전도 브랜드였습니다. 이 구호로 그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언제나 올곧았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목사님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1902년 평북 삭주교회의 설립자 백유계로부터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사회 계몽 운동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단에 불온한 문구가 있다고 트집잡아 그 주동자들을 체포하여 배후 인물을 대라며 온갖 고문을 가했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되어 지도층 인사인 장이옥(張利郁), 이용설(李容濤), 김동원(金東元), 이광수(李光洙), 정인과(鄭仁果), 주요한(朱耀翰), 백영업(白英燦) 등 수십 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곤욕을 당하였다.

당시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할 때, 변호인은 동경 법대 교수를 지냈던 유명한 영목(鈴木)이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재판은 예수의 무죄를 말하면서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법정이다. 현명한 재판장은 빌라도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여, 결국 전원 무죄 석방되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민족의 저변에서 일어나는 절제운동까지 억압하여 민족정신 말살을 기도하는 악랄한 정책을 줄기차게 수행해 나갔다. 그리하여 일제는 연합회, 지교회의 회장을 경찰서에 연행하고 고문을 가하여 자기들 정책에 순응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줌으로써 결국 청년회를 모두 해체해 버리고 말았다.

한국교회 역사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교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쳤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기독교의 모든 것으로 알고 따랐다. 그러나 한 두 사람씩

해외유학을 다녀오면서 기독교 신학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신학의 도입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 안에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과 서서히 새로운 신학을 소개하여 한국 교회로 하여금 다양한 신학적 견해와 입장을 갖도록 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선에 수교장로회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전 시대에 평양 신학교 一門(일문)으로 교역자를 양성할 시에는 派別(파별)도 無(무)하고 사상에 충돌도 없었지만 현대에 入(입)하여 사조가 복잡하고 교풍이 빈번함에 따라 신학사상을 包來(포래)한 선교사도 有(유)하며 미국에 유학하고 귀국자도 유하며 일본에 轉學(전학)하고 입국자도 유하여 長短(장단)을 相評(상평)하며 曲直(곡직)을 도변하는 중에서 신구의 교리와 학설이 縣殊(현수)하니 傍觀者(방관자)로 하여금 深思(심사)하지 아니하고도 何長何短(하장하단)과 何曲何直(하곡하직)을 判明(판명)하게 한다.”

이 글에서 보듯이 한국 신학의 갈등은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한 해외파들에 의해 비롯되었다. 보수, 정통만을 가르쳤던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선교사들의 신앙과 진보적 신앙을 경험한 해외유학파 간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학적 갈등은 한국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지워지지 않는 양극처럼 남아 있던 지방색이라는 정치적 요인까지 겹쳐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이한 신학적 입장과 지방색이라는 요인들은 1950년대에 이르러 장로교회가 두 번씩이나 나누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신학적 입장과 지방색 갈등의 배경은 이렇다. 즉 교세가 전국에서 가장 강했던 서북 지방, 특히 평안도는 신앙적으로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교세가 약한 남부는 신학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학과 정치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강세인 북(北)이 개방적이고 자유스런 남(南)을 지탄하는 것으로 가다가 접혀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1930년대 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50년, 즉 희년(禧年)이 되는 때, 한국 교회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 일제가 곧 강요하기 시작할 신사참배라는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 장로교회의 타 신학에 대한 경계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총회는 분명한 어조로 그 자격 기준을 선언했다. 1917년 총회는 “타 신학을 졸업한 이로 본 장로회

에서 사역하려는 자는 먼저 장로회의 인도와 관리를 받고, 본 교(평양 장로회신학교) 별(別)신학에 출석하여 성경, 정치, 규칙을 강습한 후 취직케 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신학의 유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심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신학이 독일 근대주의 신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학의 다양성은 곧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신학의 폐쇄성은 동시에 교회에 대한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신학적인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평양 산정현교회의 담임이었던 송창근(宋昌根 1898-1950?) 목사의 사임이었다. 강규찬(姜奎燦) 목사가 은퇴하고 그의 후임으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 교회 담임으로 온 송창근 박사의 신학이 진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만식 장로 등 보수적인 교우들에 밀려 결국 부산진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고통을 “조선교회에 누구의 당이 있다, 누구의 파가 있다 하여 서로 노려보고 못 믿어 하는 태이요, 게다가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남(南)놈, 북(北)놈 하여 스스로 갈등을 일삼으니 이 어찌함인가. ... 50년 희년(禧年)인가, 50년 희년(禧年)인가!”라고 한탄(恨歎)했을 때 이미 한국 교회의 보수, 진보 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예시하고 있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폴터두**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염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관절염,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 선교의 기반

학개 2:1-9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칠 월 곧 그 달 이십일 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3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4 그러나 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 (중략) ...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9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1. 선교의 기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배은망덕하여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미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를 깊이 염려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여러 모양으로 권면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태도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하심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음세대의 역사를 엮어 가셔야겠다는 가슴 아픈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기드론 골짜기에는 시체가 쌓였으며,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하여 공들여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리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태도를 보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었으며, 그곳의 기물은 모두 바벨론으로 행거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인연이 근본적으로 끊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해오는 세대의 이스라엘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형벌아래 징계할 것이며, 다음세대의 남은 자들 중에서 신앙으로 회복해서 인연을 맺고, 하나

님의 뜻을 땅 위에 펼쳐갈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 2. 선교의 기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옴

이렇게 7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차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생겨난 비극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개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연합군으로 하여금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심으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으로 함께했던 메대와 바사가 다시 싸움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학대받는 실정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셨고 그가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는 나의 기쁨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사 45:1) 이것은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를 엮어가는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사나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에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비참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왕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 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찌니라”(스 1:2-4)고 공포(公布)하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의 처지가 막막하고 끝났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예정하신 섭리가 남아 있는 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계 역사를 바꿔서라도 모든 주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3. 선교의 기반: 하나님께서 기대거실만한 모범적인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와 전을 건축코자 하

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은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스 1:5-6)했던 첫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학 1:2)고 하면서 자신들이 거쳐할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학개 1장 4-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유하며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 중에 예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성전에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학 2:3)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겠으니 스스로 굳게 하여 성전 짓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성전 짓는 일을 감당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하신 말씀처럼,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처하실 곳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행 7:49)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 조건으로 보살피시고, 축복하시며,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학 2:6-7)고 하십니다. 이것은 “만국의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전의 주인공이 될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버려야 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 배은망덕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인 배신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소화(燒火)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재건될 성전은 가나안 포로생활 중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두고, 그 시대의 세계적인 역사를 영적인 기준으로 엮어 가시기 위한 엄청난 비전이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교의 기반으로 세워졌다 는 사실입니다.

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 받아 왔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대거실만 하고, 그 신앙이 가장 올바르고, 모범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계만방에 이러한 교회를 보급해야겠다는 기대감이 넘쳐났기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현세에도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선교의 본거지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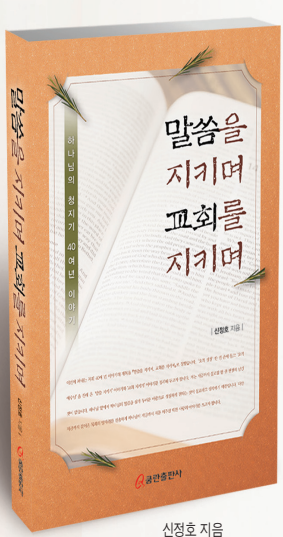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쿤란, 쿤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부산행> 속편, 영화 <반도> (下)

# <반도>와 '죽지 않는' 좀비 문화 유행, 신앙에 미치는 영향

◆불사의 존재와 이교 오컬티즘: 구전설화에서 낭만주의 문학으로

오늘날 대중문화계 전반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좀비 콘텐츠들은 하나같이 불사(不死)에 대한 기괴한 선입견을 불어넣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불사란 원래 인류 공통의 종교적 소망이었다. 그런데 이런 불사의 소망에 기쁨, 기괴함, 시체의 부패, 살인마 등의 이미지가 부여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를 알아보려면 유럽 중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불사의 존재들에 대한 믿음의 기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 중세에 기독교화되면서 이교 신앙의 오컬트(occult)적 요소들은 음지화되거나 미신과 민담 형태로 각 지역에 잔존하게 되었고, 종래에는 기독교 신앙과 혼합되기에 이른다.

가톨릭 교회가 걸출한 신학자들을 여럿 배출하며 기독교 신앙을 온전한 형태로 지키려 애썼지만, 이런 노력이 민중들 사이에까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부 공인된 성직자,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아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가 많지 않았다. 결국 성직자들, 사제들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제들조차 성경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수도원이나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이들 외에는 대부분 신학적 소양이 크게 부족했다. 성경을 읽고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이 태반이었다.

따라서 민중들을 향한 성경교육, 신앙교육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여러 이교 오컬티즘 요소들을 기독교 교리와 뒤섞어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파생된 여러 종교적 요소들은 물론이고, 켈트족, 갈리아족, 게르만족 고대종교의 신화, 제의 등이 기독교 신앙에 섞여 들어왔다.

때문에 유럽 전역에는 지역별로 귀신, 유령, 뱀파이어, 정령(엘프) 등 불사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문화의 중심부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내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신념을 심어

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은 가톨릭 교회의 검열 대상이 되는 정식 문학의 형태로는 기록되지 못했다. 대신 민담, 구전설화, 음유시인들의 서사시 속에 흡수된 채 보존되었다.

중세를 지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영국에서는 경험론자들(토마스 홉스, 존 로크 등)이, 프랑스에서는 과학주의자들(필리엥 라메트리 등)과 계몽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내세 신앙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들 유물론 성향의 세계 이해를 공유하던 사상가들은 영혼의 불사, 영생과 영벌에 대한 기독교의 믿음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불사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게 하거나 부활시키는 것이라 믿었다.

이런 생각은 18-19세기 유럽 전역에 낭만주의가 발흥하면서 문화 예술 부문으로 이식되었다. 낭만주의자들 가운데 다수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상상력과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라고 믿었다.

따라서 불사 개념을 생각할 때 기독교의 내세 신앙보다는, 그간 예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던 이교 신앙의 불사 개념을 참고하고 환영했다. 현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불사의 존재들에 대한 이미지 대부분은 낭만주의 시대 때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과학주의와 이교 오컬티즘의 불사 개념이 낭만주의적으로 종합된 결과, 1818년 불사 괴기 문학의 시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가 출판되었다. 메리 셸리의 친구였던 존 폴리도리는 1년 뒤 낭만주의 시대 최초의 흡혈귀 소설 <뱀파이어>를 발표했다.

그 후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에서 불사의 존재란, 잊을 만하면 다시금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되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나 뱀파이어는 물론이고, 웨어 울프(늑대인간), 도리안 그레이(오스카 와일드 소설의 불사의 청년) 등이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영국에서는 아예 이런 괴기스러운 존재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B급 잡지 페니 드레드풀(Penny Dreadful)까지 출간되어 인기를 끌기도 했다.

◆불사의 존재와 기독교 내세신앙: 낭만주의 문학에서 21세기 문화 콘텐츠로



최근 개봉한 좀비 영화 <반도>(2020).

이처럼 근현대 대중문화에서 불사의 존재란 매우 기괴하고,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인간을 농락하고 살해하는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그 원인은 근대 낭만주의 시대 문학계가 기독교 신앙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과학주의와 이교 신앙의 불사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좀비 문화는 이러한 낭만주의적-이교적 불사의 존재에 대한 상상의 현대적 산물로서, 그 문화사적 연장선상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 최초의 좀비 콘텐츠는 1922년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 <허버트 웨스트-리애니메이터>(Herbert West-Reanimator)였다. 영화 편으로는 1932년 미국에서 제작된 <화이트 좀비>(White Zombie)가 최초의 좀비 영화였고, 1943년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I Walked with a Zombie)가 그 뒤를 이어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좀비는 21세기형 좀비와는 모습이 크게 다른, 서인도제도 아이티의 부두교적 좀비(주술로 정신을 조작해 노예로 만든 사람)와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좀비의 모습을 최초로 영상화한 작품은 좀비 영화의 거장 조지 로메로 감독이 1968년 제작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Night of the Living Dead)이었다.

로메로 감독이 상상한 좀비의 모습과 특징들은 현대 좀비 콘텐츠의 표본이 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로메로 감독의 좀비 설정에 생체 과학기술(좀비 바이러스 개발과

장관)이라는 모티프가 합쳐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좀비의 전형이 완성되었다.

전편의 논평에서 언급했던 일본 캡콤의 게임 <바이오하자드>(1996), 영국영화 <28일 후>(2002)가 오컬티즘과 과학기술 모티프가 합쳐진 21세기형 좀비물의 시조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낭만주의 문학에서 최초로 불사의 존재를 다룬 작품 <프랑켄슈타인>의 서사가 현대 좀비 콘텐츠와 유사한 서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몸의 죽음을 극복하려다 그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한 괴물의 탄생이라는 것, 이것이 <프랑켄슈타인>과 오늘날 좀비 콘텐츠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 '단 한 번 사는 삶'의 소중함을 강변하는 실존철학의 가르침에 부합한다. 인간의 삶은 '완전한' 죽음을 통해 완성되고 본래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인간 이해가 오늘날 거의 모든 좀비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다.

인격의 존속, 영혼의 불사에 관한 기독교 신앙은 비현실적인 종교적 욕망의 일환이라는 것, 좀비 콘텐츠는 이러한 믿음을 반영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죽어야 한다. 인간이 죽지 않고 불사하게 된다면 그 끝은 오직 인간성의 상실과 기괴한 욕망의 극대화일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뱀파이어, 좀비를 비롯해 온갖 양태의 불사의 존재에 대한 서사를 다루는 문화 콘텐츠를 관통하

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좀비 신드롬이라는 문화현상 이면에는 이교 오컬티즘, 과학주의에 대한 양면적 태도(수용과 회의), 그리고 실존철학적 인간 이해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이 연합해 기독교의 내세 신앙을 허망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사상적 의도가 확인된다.

이미지의 힘은 은근하지만 강력하다. 좀비 콘텐츠 서사의 허구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비의 모습으로 유형화된 불사 상태의 이미지는 의식 깊숙한 곳에 남아 내세와 영생을 불쾌한 것으로 취급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성경적인 내세 신앙을 확립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좀비물 한두편 관람한다고 신앙이 훼손되지는 않겠지만, 좀비 문화가 대중문화의 주류에 편입되어 불사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지배하면 할수록 기독교 내세 신앙은 점점 더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영화 <부산행>, <김뎌>, <살아있다>, <반도> 같은 한국의 좀비 콘텐츠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작품성을 떠나, 그것들이 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세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현세 중심 정신문화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 사회에 내세 신앙을 부정적으로 그려내는 서구 좀비 문화가 유입되고 유행한다면, 대중문화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요소, 기독교적 문화 요소들은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보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 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